MILAL & WORLD 10

장애인 전도 / 봉사 / 계몽

밀알&세계





표지사진

지난 9월 9일, 남가주밀알과 주님의빛교회 소망부 연합으로 '2026 Adventure AGAPE'가 열려 총 104명의 참가자들이 디즈니랜드를 방문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02 | 칼럼
효율성의 편함과 존재의 평안

04 | 밀알러로서의 보람
한 알의 밀알, 변화의 첫걸음

06 | 2026 사랑의캠프 에세이 금상 수상작
무지개 노래

09 | 함께하는 선교
복음의 수혜자에서 선교의 동역자로

12 | 2026 Adventure AGAPE 디즈니랜드 나들이
무더위 속에서도 웃음 가득했던 하루

14 | 2026년 기획 연재: 밀알의 장애인신학 이야기(10)
함께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6 | 밀알칼리지의 여름 이야기
레인포레스트 폴스에서 만난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

밀알&세계

남가주 • 북가주 • 시애틀 • 벤쿠버 • 텍사스 통합판

통권 제308호 | 2026년 10월호
발행인: 이재서 | 편집인: 장영준 | 편집책임: 이준수

지역별 구독문의
남가주: 562-229-0001 | 북가주: 408-605-2134
시애틀: 425-444-1669 | 벤쿠버: 604-339-4417
텍사스: 267-467-5971

월간 <**밀알&세계**>는 장애인들과 함께하길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하며 정성껏 만듭니다.

월간 <**밀알&세계**>에 관한 좋은 의견이나 문의가 있으신 분은 mweditor@milalsca.org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칼럼

효율성의 편함과 존재의 평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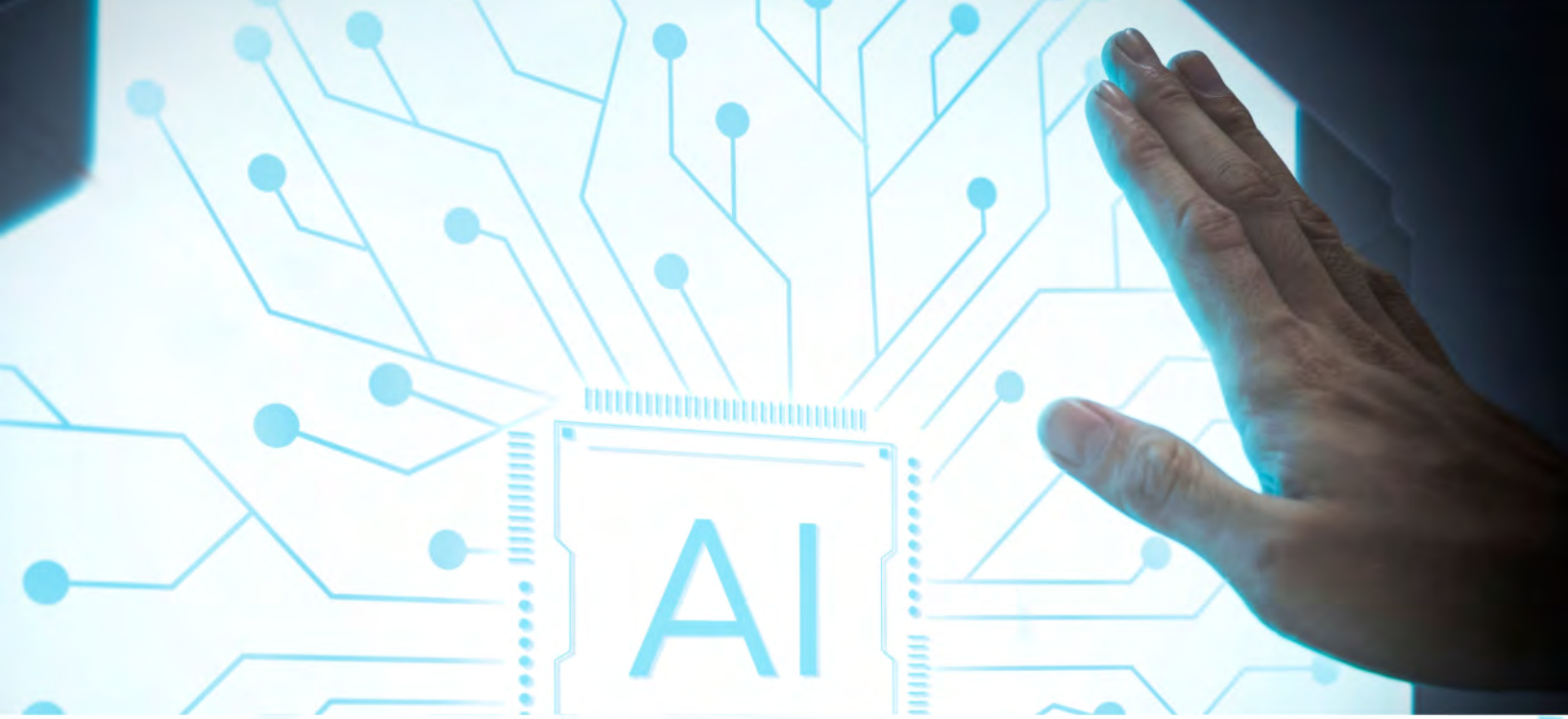
The Comfort of Efficiency and the Peace of Being

요즘 인공지능(AI)과 대화를 하면서 물어보았어요. "너는 감정이 있니?" "아니." 대화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편한 것이 평안한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요즘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 중 하나는 '편함' 일 것입니다. 특히 AI 기술의 고도화는 일상의 번거로움을 자동화하고 인간의 노동을 최소화하며 편리함의 정점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시스템이 최적화될수록 인간 내면의 궁극적인 '평안'과는 도리어 거리가 멀어집니다. 편함이 외부 환경의 효율성을 뜻한다면, 평안은 결핍과 불확실성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정신적, 정서적 안정이기 때문입니다. 존 마크 코머(John Mark Comer)는 그의 저서 『The Ruthless Elimination of Hurry』에서 현대인의 지나친 속도와 분주함이 영혼의 사랑과 기쁨, 그리고 평안을 약탈한다고 경고합니다. 즉, AI가 가

Recently, while chatting with an AI, I asked, "Do you have emotions?" It replied, "No..." This conversation brought a realization to mind: comfort does not necessarily mean peace. One of the defining values pursued by contemporary society is 'comfort'. In particular, the advancement of AI has pushed convenience to its peak by automating daily hassles and minimizing human labor.

However, as systems become more optimized, we paradoxically drift further away from "peace" of the human soul. While comfort refers to the efficiency of our external environment, peace is a state of mental and emotional stability enjoyed within Christ, even amidst lack and uncertainty. In his book <The Ruthless Elimination of Hurry> John Mark Comer warns that the excessive speed and busyness of modern life rob our souls of love, joy, and peace. In other words, the high degree of convenience brought by



져온 고도의 편리함이 역설적으로 우리를 더 분주하게 만들고, 진정한 평안을 빼앗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가치의 충돌은 장애인 선교의 현장에서 선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음성 인식, 자율 주행, 스마트 보조 기기 등 AI 기술은 장애인의 이동성과 소통을 도우며 긍정적인 '편함'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효율성만을 맹신하는 사회 시스템은 AI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거나 생산성이 떨어지는 약자들을 주체에서 배제하는 치명적인 위험을 내포합니다. 진정한 장애인 선교는 기술적 보완을 제공하는 복지적 차원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장애인을 단순히 '결함이 있어 교정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능동적인 사역의 주체'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시급합니다.

결국 AI 시대의 장애인 선교는 기술의 편리함을 지혜롭게 도구로 활용하되, 속도와 효율의 논리에 함몰되지 않는 균형 감각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가 기꺼이 비효율성을 감수하며 멈춰 서고 서로의 약함을 용납할 때, 고도화된 기술조차 결코 채울 수 없는 신앙적 연대와 그리스도의 참된 평안이 비로소 실현될 것입니다.

AI can ironically make us more hurried, stripping away true peace.

This clash of values is most clearly manifested in the field of disability ministry. AI technologies provide a positive form of 'comfort' by enhancing mobility and communication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Yet, a social system that blindly worships efficiency carries the critical danger of marginalizing vulnerable individuals who do not meet AI standards or whose productivity is deemed lower, excluding them from being active participants. Milal ministry cannot stop at a welfare level that merely provides technological adjustments. There is an urgent need for a paradigm shift: we must stop viewing people with disabilities simply as 'flawed individuals who need fixing' and instead recognize them as 'active agents of ministry' who build the Church of God on equal footing with the non-disabled.

Ultimately, disability ministry in the age of AI depends on a delicate balance—wisely utilizing technological convenience as a tool without becoming swallowed by the logic of speed and efficiency. When the church willingly embraces inefficiency, pauses, and accepts one another's weaknesses, a faith-filled solidarity and the true peace of Christ—which even the most advanced technology can never fulfill—will finally be realized.

Writer | Rev. Kyungsoo Chae
(Director of Milal Mission in Texas)











| 밀알러로서의 보람

한 알의 밀알, 변화의 첫걸음

Returning to Class Agape

저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밀알봉사를 잠시 중단했었습니다. 그리고 여름방학을 보낸 후 다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밀알러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밀알봉사의 ABC를 다시 가슴에 새겼습니다. 밀알봉사의 가치와 의미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사랑의교실 첫 날을 앞두고는 가슴이 설렜습니다. 그런 한편으로,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함께한 사랑의교실을 통해 봉사는 거창한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진실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잘할 수 있을까?' 했던 저의 걱정은 사랑의교실을 시작한 후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하다 보니 어색함은 오래가지 않았고, 친구들과 함께 뜻깊은 하루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거창한 일을 하지 않아도 그저 한 공간에서 웃고 어울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느낀 하루였습니다 .

사랑의교실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엔 늘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 덕분에 다음 봉사날이 자연스럽게 기다려졌습니다. 그런 기억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내가 밀알러로 있다는 것이 소중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그리고 동료 밀알러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사람으로 지어져가는 이 시간이 참으로 귀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함께 성장해갈 것입니다. 이 기대가 커져갑니다.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수많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노력이 더 큰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변화를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For personal reasons, I had taken a break from serving at Milal. After the summer break, I began volunteering again. During the MILALER Orientation, I was able to take the ABCs of serving at Milal to heart once more. The value and meaning of this ministry came alive to me in a fresh way. As the first day of Class Agape approached, I felt excited. At the same time, I also wondered, "Will I do well?"

Through returning to Class Agape after such a long time, I was reminded that service does not require grand gestures, but simply a sincere heart. The worries I had before we began naturally disappeared once Class Agape started. As we sang praises and worshiped together, the awkwardness quickly faded, and I was able to spend a meaningful day with our friends. That day, I realized that we do not have to do anything extraordinary; simply sharing the same space, laughing, and being together is more than enough.

On the way home after Class Agape, my heart always feels warm, and that feeling naturally makes me look forward to the next day of service. Those cherished memories came alive in me again. Being a MILALER is precious to me, and I am proud to be one. This time in which God is shaping us through his salvation—together with our friends and fellow MILALERs—is truly precious. We will continue to grow together in the Lord, and my hope and anticipation are growing. Just as one grain of wheat falls to the ground and bears much fruit, I hope that our efforts will grow into a greater positive influence and, as time goes by, bring meaningful change to the lives of more people.

Writer | **Seung-joo Lee** (Vancouver Milaler 2025-01)

주: '밀알러'는 밴쿠버밀알의 자원봉사자를 지칭합니다.
Note: 'Milaler' refers to a volunteer at Vancouver Milal.





| 2026 사랑의캠프 에세이 금상 수상작

무지개 노래 Rainbow Song

남가주밀알 오렌지 카운티 사랑의교실의 모든 이들이 마음으로 외우고 있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무지개 노래'입니다. 어떤 봉사자에게든 이 노래를 불러달라고 하면, 아마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바로 부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이 노래를 여러 번 듣게 되는데, 우리 밀알 친구 중 한 명이 감정적으로 힘들어할 때마다 안도감과 평안을 찾도록 도와주는 노래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단순한 노래가 제가 밀알 사랑의캠프에서 겪은 가장 의미 있는 추억들 중 하나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캠프 둘째 날 밤, 저녁 모임을 위해 호텔 로비 중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갑자기 화재경보기가 울렸습니다. 요란한 경보음이 건물 전체에 울려 퍼졌고, 우리는 계단을 통해 대피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3층에 있었고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없었기에, 신체적 장애가 있는 많은 밀알 친구들을 모두 아래층으로 무사히 대피시키는 일이 특히 어려울 것이라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제가 맡은 짝꿍(buddy) 친구를 등

There is one song that everyone in the Orange County Milal branch knows by heart: the Rainbow Song. If you asked any volunteer to sing it, they could probably start without thinking twice. Every Saturday, we hear it several times because it is one of the songs that helps one of our buddies feel safe and calm whenever he becomes overwhelmed. However, I never imagined that such a simple song would become one of the most meaningful memories from my time at Milal Camp.

During one of the nights, we were gathered in one of the hotel lobbies for our evening meeting when the fire alarm suddenly rang. The loud alarm echoed throughout the building, and we were instructed to evacuate using the stairs. Since we were on the third floor and could not use the elevators, we knew getting everyone downstairs would be especially difficult for many of our buddies with physical disabilities.
Without hesitation, I carried my buddy on my back down three flights of stairs, grateful that we were able to make it outside safely together. Once everyone gathered in the outdoor seating area, I noticed another



에 업고 세 층의 계단을 내려왔고, 함께 무사히 밖으로 대피할 수 있었음에 감사했습니다. 밖의 대기 장소에 모두가 모였을 때, 유독 힘들어하는 다른 밀알 친구 한 명이 눈에 띄었습니다. 요란한 경보음과 번쩍이는 불빛, 그리고 주변의 당황스러운 분위기가 그 친구를 몹시 두렵게 만든 것입니다. 그 친구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에 과도하게 자극을 받아 귀를 막은 채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그 친구 곁에 앉아 등을 부드럽게 토닥여 주었습니다. 친구는 수어로 '무지개 노래'를 듣고 싶다고 표현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 친구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아차렸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들었던 바로 그 노래였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곧바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즉시 더 많은 봉사자들이 그 친구 곁으로 모여들었

buddy who was having a particularly difficult time. The loud alarm, flashing lights, and panic around him had become incredibly overwhelming. He was crying and covering his ears, clearly overstimulated by everything happening around him.

I sat beside him and gently patted his back, hoping to comfort him. Through sign language, he motioned that he wanted to hear the Rainbow Song. Instantly, I knew exactly what he was asking for. It was the same song I had heard every Saturday, but this time it carried a completely different meaning.
Right away, I began singing.

Almost immediately, more volunteers gathered around him. Some softly sang along while others rubbed his back or held his hand. Together, we focused on helping him feel safe again. Slowly, his breathing

습니다. 어떤 봉사자들은 부드럽게 노래를 따라 불렀고, 어떤 이들은 친구의 등을 문질러 주거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그 친구가 다시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돕는 데 집중했습니다. 천천히 친구의 호흡이 차분해졌고, 얼굴에 서려 있던 두려움도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이 펼쳐지는 모습을 보며 저는 결코 잊지 못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주변의 동료 봉사자들을 둘러보며, 저는 가장 순수한 형태로 하나님의 사랑을 목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누구도 그 친구를 위로하라고 지시하거나 나서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스스로 다가가 인내와 긍휼, 그리고 다정한 마음으로 그 친구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기꺼이 다른 이를 돌보고자 하는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자주 드러난다는 사실을 저에게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사랑의캠프에 참가하기 전, 저는 주로 우리 밀알 친구들을 섬기기 위해 그곳에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들이 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은 조건 없는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었고, 때로는 익숙한 노래, 부드러운 손길, 혹은 그저 곁에 앉아 있어 주는 것과 같은 가장 작은 행동이 가장 큰 울림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되돌아보면 화재경보기 사건은 사랑의캠프에서 겪은 그저 스트레스 받는 기억 중 하나로 남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가장 큰 감동을 준 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무지개 노래'를 들을 때마다, 저는 그날 저녁 한 친구의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뀔 때까지 사랑으로 그를 감싸 안았던 봉사자들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단지 누군가를 돕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 안에 반사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것임을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캠프가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간직할 귀한 교훈입니다.

became calmer, and the fear on his face began to fade. Watching that moment unfold was something I will never forget.

As I looked around at my fellow volunteers, I realized I was witnessing God's love in one of its purest forms. No one was told to comfort him or asked to step in. Everyone simply chose to surround him with patience, compassion, and kindness. It reminded me that God's love is often shown through ordinary people who are willing to care for others without expecting anything in return.

Before attending Camp AGAPE, I thought I was going there mainly to serve our buddies. Instead, they ended up teaching me. They showed me what unconditional love looks like and reminded me that sometimes the smallest acts—a familiar song, a gentle touch, or simply sitting beside someone—can have the greatest impact.

Looking back, the fire alarm could have become just another stressful memory from camp. Instead, it became the moment that touched me the most. Every time I hear the Rainbow Song now, I remember that evening and the circle of volunteers surrounding one buddy with love until his fear turned into peace. Through that experience, God reminded me that serving others is not only about helping people—it is also about seeing His love reflected through them. It is a lesson I will carry with me long after camp has ended.

Writer | **Hailey Yoo**
(Volunteer of OC Class AGAPE,
Milal Mission in Southern California)





복음의 수혜자에서 선교의 동역자로

Beyond Beneficiaries: Becoming Partners in the Gospel

많은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지역사회를 섬기고, 세계 여러 곳에서 선교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홈리스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가기도 하며, 단기 선교팀을 보내 어린이들과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역에는 어린아이와 청소년부터 어르신들까지 다양한 연령의 성도들이 자신의 시간과 재능을 기쁨으로 나누며 참여합니다.

하지만 선교 사역에 직접 참여하는 장애인들을 만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마도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일을 해야 하는 단기 선교의 특성 때문일 것입니다. 식사를 준비하고, 접근하기 어려운 가정을 방문하고, 어린이 사역을 진행하거나

Many churches carry out Christ's call to share the Gospel by serving their local communities and participating in mission work around the world. Church members volunteer their time and talents in many ways—from preparing meals for the homeless and visiting underserved communities to joining short-term mission trips to share God's love with children and families. People of all ages take part in these ministries, from young children and teenagers to older adults. It is always inspiring to see people joyfully sharing the grace they have received.

Yet, we do not often see people with disabilities actively participating in mission work. Perhaps

건축과 보수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빠르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사역의 중심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선교는 '얼마나 많은 일을 완성했는가' 만큼이나 '어떻게 함께했는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교는 단지 계획된 일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함께 섬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장애인들도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7월 말, 5박 6일의 일정으로 니카라과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이번 선교에서는 미션스쿨과 지역 교회에서 총 네 차례의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10여 가정을 방문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별한 사역이 있었습니다. 바로 교회 벽에 성경 이야기를 담은 벽화를 그리는 일이었습니다.

현지 선교사님의 요청으로 시작된 벽화 사역은 한때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진 교회의 다섯 구역 벽에 어린이들을 위한 성경 이야기를 그리는 일이었습니다. 벽 하나의 크기가 너비와 높이 각각 3.5m와 2.5m에 이를 만큼 컸고, 현지에서는 이틀 안에 다섯 개의 벽화를 완성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제 크기의 그림을 종이에 미리 그리고 색칠한 뒤, 니카라과로 가져가 벽에 옮겨 그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준비 과정에 마이애미밀알 토요 사랑의교실 친구들과 고등학생 봉사자들이 함께했습니다.

다섯 개의 큰 그림을 준비하는 데에는 약 두 달이 걸렸습니다. 밀알 친구들과 봉사자들은 함께

this is because short-term missions often require many tasks to be completed within a limited time. Mission teams may prepare meals, visit homes in difficult-to-reach areas, lead children's programs, or even help with construction and repairs. As a result, mission activities can naturally become centered around those who are physically able to work quickly and independently.

However, I believe that how we serve is just as important as what we accomplish. Mission is not simply about completing a list of tasks. It is about sharing God's love and serving together.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open opportuniti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o participate in ways that are meaningful and possible for them.

At the end of July, I joined a six-day mission trip to Nicaragua. Our team held four Vacation Bible School programs at a mission school and a local church, visited more than ten families to worship and pray with them, and completed a special mural project at one of the churches.

At the request of the local missionary, we planned five large murals depicting Bible stories for children. Each wall was approximately 3.5 meters wide and 3.5 meters high, and we had only two days to complete all five murals. To prepare, we drew and colored the designs on full-size paper in Miami so that we could easily transfer them onto the church walls in Nicaragua.

This preparation became a special opportunity for our friends with disabilities in the Miami Milal Class AGAPE and our high school volunteers to participate in the mission. For nearly two months, they worked







그림을 그리고 색칠하며 조금씩 작품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비록 니카라과에 직접 가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손길과 마음은 이미 선교에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니카라과에서는 오전 성경학교를 마친 후 선교팀과 현지 청년들이 함께 벽화 작업을 했고, 이틀에 걸쳐 다섯 개의 벽화를 완성했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모세, 요나를 삼킨 큰 물고기, 부활하신 예수님의 빈 무덤, 양들의 목자가 되신 예수님,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까지. 다섯 개의 벽을 따라 펼쳐진 그림들은 하나의 파노라마처럼 성경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벽화를 특별하게 만든 것은 그곳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었습니다. 멀리 마이애미에서 두 달 동안 정성껏 그림을 그리고 색칠한 밀알 친구들의 손길이 바다를 건너 니카라과의 작은 교회 벽에 담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그림들은 그곳의 어린이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함께하는 선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 장애인은 복음을 전해 받는 대상일 뿐 아니라,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사역의 동역자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같은 방법으로 섬길 수는 없지만, 각자의 모습과 자리에서 함께할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사역의 문을 넓히고 함께할 자리를 마련한다면, 밀알 친구들의 작은 손길도 바다를 건너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선교가 될 수 있습니다.

together to draw and color the five large designs. Although they did not travel to Nicaragua, their hands and hearts became part of the mission.

After our morning VBS programs in Nicaragua, our mission team and local young adults worked together to complete the five murals over two days. Across the church walls appeared Moses parting the Red Sea, the great fish swallowing Jonah, the empty tomb of the risen Jesus, Jesus as the Good Shepherd, and Jesus' call to become fishers of men. Together, the five murals formed a panorama of Bible stories for the children of the church.

What made these murals especially meaningful were the hands that could not be seen there—the hands of our Milal friends in Miami who had spent two months helping prepare them. Their drawings traveled across the sea with us, became murals on a small church in Nicaragua, and are now sharing Bible stories with children they may never meet. Perhaps this is what it means to serve together in mission.

This experience reminded me that people with disabilities are not only recipients of ministry. They can also be valuable partners in sharing the love they have received with others. We may not all serve in the same way, but there is a place for everyone in God's work. When we open the door a little wider and create opportunities for everyone to participate, even a small act of service can travel across the sea and become a beautiful way of sharing the love of Jesus.

Writer | **Minseon Park**
(Director of Milal Mission in Miami)









무더위 속에서도 웃음 가득했던 하루

A Day Filled with Smiles Despite the Sweltering Heat

지난 9월 9일, 'Brian & Iris Na Foundation'의 따뜻한 후원으로 '2026 Adventure AGAPE' 디즈니랜드 나들이가 열렸습니다.

올해는 남가주밀알 사랑의교실과 주님의빛교회 소망부가 함께 참여해 총 104명의 장애인 친구들과 가족, 교사와 봉사자들이 함께했습니다.

화씨 100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였지만, 참가자들의 얼굴에는 하루 종일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놀이기구를 타고,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곳곳에서 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장애인 가족들에게는 모두가 함께 나들이하며, 마음껏 웃고 즐길 수 있었던 시간이 더욱 특별했습니다.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가족이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었던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이 귀하고 소중한 시간과 추억을 전적으로 후원해주신 Brian & Iris Na Foundation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On September 9th, the '2026 Adventure AGAPE' Disneyland outing took place, made possible by the generous sponsorship of the Brian & Iris Na Foundation.

This year, the event brought together Class AGAPE at Milal Mission in Southern California and the Lord's Light Church's Somang(Hope) Ministry, with a total of 104 participants, including our friends with disabilities, their families, teachers, and volunteers.

Even in the sweltering heat exceeding 100 degrees Fahrenheit, the participants' faces were bright with smiles all day long. They created wonderful memories as they enjoyed amusement rides, shared delicious meals, and took photos throughout the park with their loved ones.

This time was particularly special for the families of our friends with disabilities, providing a rare opportunity for everyone to enjoy an outing, laugh, and have fun together freely. It was a truly grateful day that allowed them to step away from their daily routines and make precious family memories.

We would like to express our deepest gratitude to the Brian & Iris Na Foundation for fully sponsoring this invaluable time and the beautiful memories made.

Writer | **Yuri Yi** (Director of Class AGAPE at Milal Mission in Southern California)

Adventure AGAPE in Disneyland




drive


DISNEYLAND TRANSPORTATION Co
TOWN SQUARE · MAIN STREET · PLAZA · FANTASYLAND


Enter this code in the Disneyland mobile app to link your photos!
M8436736
To thank our Guests, enjoy complimentary Disney PhotoPass® digital photo downloads from select attractions!






50





함께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What Does It Mean to Worship Together?

예배는 교회의 중심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섭니다. 그런데 장애인이 함께 예배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해 온 '함께'라는 말이 새로운 질문을 갖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속도로 찬양하지 못하고, 설교를 오래 집중해서 듣기 어렵거나 말씀의 내용을 언어로 설명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이해와 표현의 능력으로 만 바라보면, 적절한 시간에 반응하는 사람만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처럼 보이며 참여의 기준은 좁아집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 인간의 완성된 반응보다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시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각자의 모습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Worship stands at the center of the church. We listen to Scripture, sing, pray, and gather before God. Yet when people with disabilities worship with us, the familiar word "together" begins to carry a deeper question. Not everyone sings at the same pace, and some find it difficult to concentrate through a long sermon or explain what they heard in words. If we measure worship mainly by understanding and verbal response, participation quickly becomes narrow, making it seem as though only those who respond in traditional ways are worshiping well.

However, biblical worship begins before human response; it begins with God's call. God gathers His people first, and those who are called respond in different ways. From this perspective, worship does not require everyone to respond in the same form. One person may pray with words, another may express joy through movement, and someone else may simply remain quietly in the room. Their expressions differ, but those differences do not determine the value of their worship.

Worship with people with disabilities also invites the church to reconsider what we mean by "order." If maintaining a certain flow causes someone to remain anxious or leave the room, we must ask whether our order serves people in their approach to God or merely protects a familiar form. In Milal worship, unexpected sounds and movements are common, but the community learns to wait, to



사람들을 한자리에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는 말로 기도하고, 누군가는 몸짓으로 기뻐하며, 조용히 머무는 사람도 있습니다. 표현의 방식은 다르지만 그 차이가 예배의 가치를 나누지는 않습니다.

장애인이 함께하는 예배는 교회가 '질서'를 어떻게 이해해 왔는지 돌아보게 합니다. 예배의 흐름을 유지하는 일은 중요하지만, 예배의 질서가 사람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돕기 위한 것인지, 이미 익숙한 형식을 지키기 위한 것인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밀알의 예배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소리와 움직임이 생기지만, 공동체는 다른 사람의 속도를 기다리고 익숙한 형식을 조금 조정하면서 '함께 드리는 예배'를 몸으로 배웁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 사람을 위해 넓어진 예배의 자리가 결국 더 많은 사람을 품는 자리가 됨을 보여줍니다. 예배가 단순해지고 여백을 허용할수록 어린이와 노약자, 초신자도 참여하기 쉬워집니다. 때로는 실제적인 필요에 따라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예배가 마련되기도 하지만, 그 목적은 분리가 아니라 더 깊은 참여여야 합니다. 장애인이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예배하면서도, 동시에 더 큰 교회의 한 지체임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함께 예배한다는 것은 모두가 똑같이 행동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각자의 언어로 응답하면서도 서로를 방해로 여기지 않고, 누군가의 참여를 위해 기꺼이 공동체의 속도를 조정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예배는 잘 준비된 사람만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사람이 은혜 안에서 함께 서는 자리입니다.

adjust, and to value the presence of a person over the smoothness of a program, truly learning what shared worship means.

Such adjustments do not benefit people with disabilities alone. When worship becomes clearer and more open to pauses, children, older adults, and newcomers often find it easier to participate. A space widened for one person becomes a more welcoming space for many. While separate worship services may sometimes be necessary, separation should never be the final goal. The purpose is deeper participation, allowing individuals to worship in ways that support their needs while knowing they belong to the larger body of Christ.

To worship together, then, does not mean that everyone behaves in the same way. It means that people called by God can respond with different forms of expression without being treated as disruptions. It also means that the community is willing to adjust its pace so that no one is pushed to the edge. Worship belongs not to those who perform it best, but to all whom God has called to stand together in His grace.

Writer | **Rev. Jungki Kim**
(Director of Milal Mission in N. CA)



| 밀알칼리지의 여름 이야기

레인포레스트 폴스에서 만난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

Rainforest Falls: A Summer of Growth and God's Love at Milal College















뉴저지 밀알칼리지의 데이 프로그램은 우리 친구들에게 개인적으로 성장하고, 새로운 관심사를 발견하며, 삶의 깊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계속해서 선물하고 있습니다. 여름을 마무리하며 돌아보니, 우리는 정말로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성장과 기쁨, 그리고 서로의 마음이 이어지는 계절이었지요. 모두가 손꼽아 기다리던 VBS가 드디어 찾아왔고, 올해는 '레인포레스트 폴스(Rainforest Falls)'라는 주제로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의 신비를 함께 탐험했습니다.

폭포와 동물들이 어우러진 열대 우림을 배경으로 꾸며진 이번 주제는, 친구들이 아침마다 데이 프로그램에 올 때마다 울창한 숲과 싱그러운 자연이 반갑게 맞아주는 모습으로 생생하게 살아났습니다. VBS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은 함께 모험을 떠나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뿌리내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인생의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안전한 쉼터가 되어 주시는지를 배웠습니다. 우리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우리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주었습니다.

VBS 외에도 우리는 함께 즐거운 나들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화 '스파이더맨'을 관람하고, 식스 플래그스 허리케인 하버(Six Flags Hurricane Harbor)를 방문했으며, 한 주의 마무리는 아메리칸 드림 몰에 있는 니켈로디언 유니버스(Nickelodeon Universe)에서 함께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여러 날에 걸쳐 다양하고 짜릿한 경험을 함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신나게 놀고 싶었지만, 아쉬움을 뒤로하고 하루 일정을 마무리하기 위해 발걸음을 돌려야 했지요. 이 모든 곳이 우리 지역에서 가까운 만큼, 우리는 더 감사하고, 곧 다시 찾아갈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마 눈 깜짝할 사이에 다시 그곳에 가 있을 것 같습니다.

Our World Wheat Day Program at Milal College continues to offer our friends wonderful opportunities to grow personally, explore new interests, and build a deep sense of fulfillment. As we wrapped up the summer, we can truly say we experienced exactly that - a season of growth, joy, and connection. The VBS we had all been eagerly looking forward to finally arrived, and this year we held it under the theme "Rainforest Falls," exploring together the wonder of God's nature.

Set in a tropical rainforest complete with waterfalls and animals, this theme came alive each morning as our friends arrived for the day program and were welcomed by a lush, thriving forest. Throughout this VBS, our friends and our teachers embarked on an adventure together to learn what it means to stay deeply rooted in a relationship with Him, and how God provides a safe place for us during life's difficult times. We reminded our friends that God is our Creator, who knows everything about us and loves us just as we are.

In addition to our VBS, we enjoyed several fun outings together, including watching "Spider-Man," visiting Six Flags Hurricane Harbor, and wrapping up the week at Nickelodeon Universe in the American Dream Mall. Our group spent days experiencing a variety of thrilling attractions side by side. While we certainly could have enjoyed each place until the very last moment, the time eventually came for us to head back to conclude our daily activities. Since these beloved destinations are so close to our community, we find ourselves all the more grateful, and we look forward to returning again soon; we truly expect to be back in the blink of an eye.

Writer | **Dept of Public Affairs at Milal Mission in New Jersey**

지단별 소식

남가주

2026 밀알의밤 개최

오는 10월9일(금)과 11일(주일) 이틀동안, 걸그룹 '베이비복스'의 멤버이자 현재 뮤지컬 배우와 교수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간미연' 집사와 남편 '황바울' 집사를 메인게스트로 초청하여 '2026 밀알의밤'을 개최합니다. 이번 밀알의밤 주제는 '따뜻한 동행'(전도서 4:9~12) 입니다. 프로그램 구성 및 광고, 티켓 판매 등 모든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유익하고 은혜로운 밀알의밤이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9일: 토랜스조은교회, 11일: 남가주동신교회)

LA 화요예배 (9월)

1일: 조영건 목사님께서 '풍성한 열매'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대표기도는 민영옥 권사님이, 특송은 석태경 집사님이 수어찬양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저녁 친교는 옥주파운데이션에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또 9월 생일 잔치도 있었습니다.

15일: 이종희 단장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고, 대표기도는 우예하라 인주 사모님이, 특송은 다니엘조 집사님이 섬겨주셨습니다.

22일: Wayne Uyehara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고, 대표기도는 이유리 간사님, 특송은 이용진 집사님이 섬겨주셨습니다.

OC 목요예배 (9월)

3일: 로뎀장로교회에서 예배를 섬겨주셨습니다. 박일룡 목사님께서 '사명이 이끄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고, 대표기도는 이동기 장로님이, 특송은 로뎀장로교회에서 섬겨주셨습니다. 저녁 친교 역시 로뎀장로교회에서 준비해주셨습니다. 또 9월 생일 맞은 분들을 축복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10일: 문성철 목사님께서 '너는 내게 소중하다'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대표기도는 김동훈 형제님이, 특송은 김지은(Carol) 자매님이 섬겨주셨습니다. 저녁 친교는 밀사모에서 준비해주셨습니다.

17일: 이준수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셨고, 대표기도는 이유리 간사님이, 특송은 아르모니아 싱어즈(남성 4중창)가 섬겨주셨습니다.

사랑의교실 (9월)

5일: 새 학기를 앞두고 각 브랜치에서 봉사자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맛있는 점심을 함께 나누고 서로 격려하며 새로운 학기를 준비했습니다. 사랑의교실 친구들을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며 설렘 가득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12일: OC 브랜치에서는 새로운 스태프들과 참가자 부모님들이 함께 다과를 나누며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로를 소개하고 알아가며 새 학기 안내를 나누는 따뜻한 첫 만남이 되었습니다.

19일: Torrance 브랜치에서는 아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오랜만에 아트 크래프트 시간을 가졌습니다. 반가운 얼굴들과 인사를 나누며 교실에는 다시 활기가 가득했고, 각자의 작품에 진지하게 집중하는 친구들의 모습에서 행복이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26일: 통합반에서는 가족들과 함께 공원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자연 속에서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함께 웃으며 다양한 게임을 즐겼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어우러져 행복한 추억을 만드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제목

- 밀알가족 모두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며, 항상 주님의 보호와 인도가운데 축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 LA화요모임, OC목요모임이 계속 은혜롭게 진행되어 밀알가족 모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기쁨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 토요 사랑의교실 7개 브랜치가 은혜가운데 안전하게 진행되고, 교사, 봉사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며, 참가자들도 적극적으로 예배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 각종 장애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밀알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치유의 손길이 임하도록.
- 스탭들과 모든 밀알가족들, 후원해주시는 교회들과 후원자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과 소망, 감사가운데 2026년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 2026년도 밀알 장학생들이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더욱 온전한 하나님의 일군들로 준비되고 학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 10월9일 & 11일에 개최되는 '2026 밀알의밤'이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잘 준비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북가주

화요예배 (9월)

1일: 세계선교침례교회에서 화요예배로 모였으며, 임마누엘장로교회 성도님들께서 함께 섬겨주셨습니다. 새누리교회 힐링하모니팀의 찬양과 특송은 정말 귀한 휴식의 시간이었습니다.

8일: 세계선교침례교회에서 뉴비전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렸고 에바다크로마하프찬양단의 특송이 있었습니다.

15일: 산호세한인장로교회를 방문하여 그곳 성도님들과 따뜻한 교제를 나누며 예배드렸습니다.

22일: 세계선교침례교회에서 산호세동산교회 성도님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29일: 세계선교침례교회에서 Mercy & Peace 팀이 정성껏 섬겨주셨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이어지는 이 귀한 모임을 위해 장소로 함께해 주시는 세계선교침례교회와 산호세한인장로교회, 그리고 매주 함께해 주신 후원교회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호세 사랑의교실

2026년 하반기 산호세 사랑의교실이 9월 12일 세화교회에서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19일에는 북가주여전도협회에서, 26일에는 온누리교회에서 귀한 섬김으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사랑의교실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며, 발달장애 형제자매들이 함께 예배하고 배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식사와 섬김으로 함께해 주시는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타클라라 사랑의교실

지난달 사랑의교실 개학 후에도 무더위가 이어졌는데,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 모습에 행복하며 매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신 주님으로 감사가 넘칩니다. 산타클라라 사랑의교실 Art & Craft 시간에 헌신하여 주시는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일 년 동안 친구들과 함께 그리고 만들었던 작품들을 전시하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Art & Craft 선생님들과 준비하는 사랑의교실 친구들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밀알의밤 행사를 함께 준비하고 있는데, 산타클라라 사랑의교실 친구들도 함께 참여하기 위해 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밀알의밤 행사에 참여하시어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성경읽기는 매주 월, 수, 목 저녁 8시 40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북가주 밀알의밤 안내

북가주밀알선교단은 오는 10월 25일(주일) 오후 5시, 마운틴뷰 새누리교회 본당에서 「따뜻한 동행」이라는 주제로 북가주 밀알의밤을 개최합니다. 이번 밀알의밤에는 간미연·황바울 부부가 게스트로 함께합니다. 밀알의밤은 한 해 동안 함께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장애인 가족과 봉사자, 후원자와 지역교회가 한자리에 모여 찬양과 간증으로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입니다. 이번 밀알의밤을 통해 마련되는 후원은 장애인 장학기금과 북가주밀알선교단의 사역을 위해 사용됩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기도제목

- 연약한 지체들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광연 장로님(간이식 준비), 장연화 자매님(재가장애인), 도한철 선교사님(루게릭), 로사 자매 아버님(건강회복), 이은희 작가님(신장투석), 써니 집사님(건강회복), 예진 어머니(회복)
- 새롭게 시작된 하반기 사랑의교실에 새로운 봉사자들이 많이 참여하게 하시고, 발달장애 형제자매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하소서.
- 매주 화요예배로 함께 모이는 밀알가족들과 섬기는 교회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 됨이 넘치게 하소서.
- 10월 25일 북가주 밀알의밤 「따뜻한 동행」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과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게 하소서.

시애틀

시애틀 사랑의교실

샬롬! 사랑의교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방학을 잘 마쳤습니다. 지난 9월 5일 사랑의교실은 2026년의 2학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랜 방학을 마치고 친구들과 봉사자들이 만나 즐겁고 반가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시애틀 형제교회 다운타운 캠퍼스의 청년들이 와서 봉사해 주셨고, 형제교회에서 점심식사로 섬겨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학기에도 밀알의 모든 가족들이 건강하고 은혜로운 시간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사랑의교실은 매주 토요일 오전 10:30~오후 2:30 에드몬즈의 시애틀연합장로교회에서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이나 장애인 친구를 소개할 분은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영준 목사425-444-1669, 남성식 디렉터 425-361-9368)

시애틀밀알아카데미(S.M.A)

매주 화요일 성인 장애인을 위한 정기모임이 있습니다. 음악수업, 크래프트, 탈춤, 북클럽, 산책, 마트 장보기, 영화보기 등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8일 2학기 수업이 개강했습니다. 이날 반가운 얼굴로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두 개강예배를 드렸고 음악수업과 크래프트, 점심, 산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학기에도 여전히 더 많은 봉사자(남자 봉사자)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봉사자들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봉사자로 자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타코마밀알아카데미(T.M.A)

매주 목요일 타코마 성인 장애인 정기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예배, 음악수업, 체육, 크래프트, 산책, 견학 등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3일 2026년 2학기 첫번째 모임을 은혜로 잘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으로 이사한 친구(정남수)와 새롭게 이곳으로 이사 온 친구(이은주)도 있습니다. 모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2학기에는 더 많은 활동이 풍성하게 진행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로 날로 TMA의 귀한 사역이 더 풍성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밀알에 귀한 사무실과 사랑의교실 장소를 제공해 주시는 시애틀연합장로교회에 감사드립니다.
- 타코마 사랑의교실에 장소,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타코마중앙장로교회에 감사드립니다.
- S.M.A 장소와 15인승 Van을 사용하도록 해 주시는 시애틀 형제교회에 감사드립니다.
- 매월 1회 SMA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시애틀 주언약교회, 낮은 울타리교회에 감사드립니다.
- 매월 1회 사랑의교실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시애틀연합장로교회, 형제교회, 시애틀온누리교회에 감사드립니다.

알립니다

- 장영준 목사는 밀알선교단 창립 50주년 기념 행사 준비에 참여했습니다.
- 사랑의교실은 9월 5일에 개학하였습니다.
- TMA는 9월 3일에 개학, SMA는 9월 8일에 개학하였습니다.
- 시애틀형제교회 Star Ministry(장애인 주일학교)예배가 주일 오후12시에 있습니다.
- 타코마제일침례교회 사랑부 예배가 주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 시애틀 온누리교회 사랑부 예배가 주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지역에 장애인(자폐 및 지적장애인)이 있으면 장애인 예배를 소개해 주세요.
- SMA(시애틀 성인장애인 모임), 매주 화요일 오전 10:30~오후3:00 성인장애인을 위한 예배와 활동(음악, 미술, 탈춤, 독서클럽, 산책, 시장보기, 체육, 외부활동)이 있습니다. 주위에 성인 장애인들을 위해 봉사하실 봉사자가 있다면 밀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 시애틀 형제교회 빌딩2, 109호)
- TMA(타코마 성인장애인 모임), 매주 목요일 오전 11:00~오후3:00 성인장애인을 위한 예배와 활동(음악, 미술, 요가, 산책, 체육, 외부활동)이 있습니다. 주위에 성인 장애인들을 위해 봉사하실 봉사자가 있다면 밀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코마중앙장로교회)

밀알에서 필요한 것

- 시애틀 사랑의교실 친구들의 사회적응프로그램을 지원할 개인과 교회를 찾습니다. (견학, 스포츠게임, Dancing, 태권도 지도, 동물원관람 등 사회적응프로그램 재정지원)
- 매주 토요일 사랑의교실에 필요한 점심과 간식을 제공해 주시고 봉사해 주실 교회나 단체, 개인이 필요합니다. (종이접시, 컵, 플라스틱 수저, 포크, 넵킨, 물도 필요합니다)
- 매주S.M.A(화) 와T.M.A(목) 성인장애인 예배와 활동 모임에 점심식사와 간식을 제공할 교회와 개인을 찾습니다. (20명)

기도제목

- 2026년 하반기에도 밀알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진행되도록
- 미주밀알 총단장직을 맡은 장영준 목사의 건강과 지혜를 위해
- 장애인 사역에 헌신된 사역자와 봉사자를 보내 주세요.
- 사랑의교실과 SMA & TMA친구들과 가정, 봉사자를 위해
- SMA에 새로 오신 선생님과 봉사자들을 위해
- 새로 온 사랑의교실 장애인 친구들과 봉사자들을 위해
- 지역사회 장애인들이 맘껏 이용할 수 있는 '밀알아트센터'가 세워지도록
- 매주 화, 목요일 진행되는 성인장애인의 모임인 SMA, TMA을 위해
- 사랑의교실이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되도록
- 시애틀 온누리교회 사랑부(장애인)사역을 위해
- 타코마제일침례교회의 사랑부(장애인)사역을 위해
- 시애틀 형제교회 장애인 주일학교 Star Ministry(장애인)를 위해

밴쿠버

밀알 '사랑의교실' Happy Together

밀알에서 행복한 친구들과 밀알봉사와 함께 성장해 가는 밀알러들이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배우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 밴쿠버밀알 사랑의교실 HappyTogether는 행복한 예배와 즐거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9월 5일에는 단장 이상현 목사님이 사도행전 8:9을 본문으로 'What does it mean to receive the word of God?'말씀을 전해주셨고, Movie Day로 특별한 시간을 가졌고, 한편 학부모님들은 기도회로 모여서 자녀들과 밀알선교를 위하여 마음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한교회(담임목사 한기현)가 맛있는 점심을 준비해주셨습니다.

9월 12일에는 사도행전 9:5을 본문으로 'Who are You, Lord?' 말씀을 전해주셨고, 대그룹활동으로 즐거운 게임과 놀이를 했습니다. 아보츠포드새생명교회(담임목사 방현)가 맛있는 점심을 준비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번 큰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밀알러(봉사자) 리크루트

'Love in Action, Faith in Motion!' 밀알러로 함께할 봉사자를 찾습니다. 축복된 경험을 함께 하고 싶은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안내해 드리는 방법을 통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밀알은 좋은 지원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훌륭한 봉사자와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신청대상: 9-12학년 학생 및 청년, 대학생
- 봉사 정보: www.vancouvermilal.com
- 신청: https://bit.ly/MilalVolunteer

밴쿠버밀알 25주년 감사

지난 8월 9일로 밴쿠버밀알선교단이 설립 25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기도와 봉사와 후원과 협력 등으로 밀알장애인선교사역에 함께 해주신 분들, 밴쿠버 지역교회와 교민사회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역현장을 함께한 밀알러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무엇보다 천사 같은 우리 친구들과 학부모님들께 감사를 나눕니다. 다음 25년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은혜와 구원과 영광을 향하여 함께 나아가 주시기를 바라며, 주님의 평안과 축복을 기원합니다.

또 다른 감사
단장 이상현 목사님이 쓴 마가복음 해설서가 9월 12일 출간되었습니다. 책 제목은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킹덤북스)입니다. 이 책은 성경, 기독론으로 읽기 시리즈의 첫번째 책으로서, '마가복음 기독론으로 읽기'라는 부제를 달고 있습니다. 복음서의 가르침을 따라 주님이 주시는 구원과 장애인의 구원을 함께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밀알의밤
오는 11월 14일, 밴쿠버밀알 25주년을 감사하면서 밀알의밤을 엽니다. <Heavenly Participants>를 주제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장소는 밴쿠버순복음교회(3095 Norland Ave, Burnaby), 도어오픈 시간은 6:45pm입니다.

밀알 1일 단기선교
밀알1일 단기선교는 아주 특별한 선교이며, 시간을 많이 내지 않고도, 따로 휴가를 내거나, 멀리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또 돈을 거의 들이지 않고도 단기선교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밀알이 진행하는 사랑의교실에 몇 시간 함께 하는 것으로 훌륭한 단기선교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문의, 604-339-4417 단장 이상현 목사).
참조: www.vancouvermilal.com > Get Involved> Become a Milaler> Day Mission Milaler

밀알선교사역 나눔
하나님의 은혜 가득한 밀알선교사역 및 장애인'선교'에 관하여 알기 원하거나, 함께 할 관심이 있는 교회, 기관 및 단체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604-339-4417).

e-transfer 후원방법 안내
이트랜스퍼를 통하여 후원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밀알을 후원하시면 세금감면을 위한 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후원하실 때, 영문이름, 포스탈코드를 포함한 주소, 이메일을 남겨 주세요. (연락처: giving@vancouvermilal.com)

기도제목
- 2026년에도 밴쿠버밀알의 모든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밴쿠버의 장애인들과 가정들이 밀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과 소망 안에 살게 하소서.
- 밀알가족들, 지역교회와 함께 장애인 전도 봉사 계몽의 사역을 잘 감당하여, 장애인의 회복으로 표상되는 하나님 나라의 임함에 쓰임 받게 하시고, 복음사역, 성령사역, 하나님 나라 사역이 되게 하시어 '사람을 새롭게, 세상을 새롭게' 하는 사역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밀알로 세워주소서.
- 장애인선교를 위하여 함께 하는 이들과 기업들과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장애인이 주님이 주시는 구원에 참여하며, 그 증인으로 살게 하는 밀알선교를 함께 이루어가는 좋은 봉사자, 기도 및 재정 후원자들을 붙여주시고 그분들을 축복하소서.
- 밀알의밤 준비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도구로 삼으소서.
- 단장 이상현 목사님과 유혜정 사모님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 부탁합니다.

텍사스

토요 사랑의교실 (8월)
15일에 자원봉사자교육을 시작으로 2026-27 학년 사랑의교실을 시작하였습니다. 10시부터 모여 찬양과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후에는 Bible study와 Art & Craft 활동을 배운 설교말씀을 중심으로 진행하였고, Gym으로 옮겨 가서 발달에 필요한 여러가지 신체활동을 하였습니다. 이후에는 맛있는 점심을 먹고, 음악치료 활동을 하면서 마무리 하였습니다.
여러 교회, 단체 및 개인들께서 재정과 음식으로 섬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scape Bakery에서는 봉사자들을 위한 베이커리로 섬겨 주셨고, 22일에는 한우리교회에서, 29일에는 뉴송교회에서 맛있는 점심으로 섬겨 주셨습니다.
토요 사랑의교실에 점심봉사를 원하시는 개인과 단체는 다음의 연락처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또한 토요 사랑의교실에 참여하기 원하는 5세 이상 장애인들은 연락주세요. 267-467-5971, txmilal@gmail.com

텍사스밀알 오케스트라 모임 시작
Many hearts, One harmony.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연주하며 하나님을 드러내고, 장애인 인식 개선과 지역 선교를 위한 밀알 오케스트라 6기 단원 모집을 마치고, 총 33명의 단원이 모여서 6회 정기연주회를 준비합니다. 10월에 있을 밀알의 밤에, 크리스마스 시즌에 지역교회에, 내년 5월 정기연주회를 준비합니다. 디렉터와 전문연주 선생님들의 협력으로 좀 더 음악적 협력이 있을 예정이며, 오케스트라 학부모님들이 모여서 기도모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풍성한 기도가 기도모임을 통해 주님께 드려지길 기도합니다. 오케스트라 단원이나 봉사자로 지원하고자 하는 분은 밀알선교단으로 연락주세요.

텍사스밀알선교단의 밀알의밤 진행
- 일시: 2026년 10월 23일 (금) 7:30 pm
- 장소: 뉴송교회 (4220 Fairway Dr, Carrollton, TX 75010)
- 게스트: 간미연(베이비복스 멤버, 방송인), 황바울(뮤지컬배우), 밀알오케스트라, 첼로앙상블, 최다윗(악기), 김다나(성악)
- 티켓: $20
- 티켓 문의: 텍사스밀알선교단 사무실 (267-467-5971)

사랑의교실, 밀알 아카데미 오픈
8월 15일부터 사랑의교실은 매주 토요일마다 다시 모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아카데미는 8월 오리엔테이션을 거쳐 9월 3일에 첫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사랑의교실은 이번 시즌에 말씀에 집중을 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든 활동이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카데미는 서부 사랑의캠프 참여 이후에 모임을 다시 시작하면서 학생들의 주도적인 활동 참여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있으며, 신체의 밸런스를 회복하기 위한 스트레칭 과목을 신설하여 진행합니다. 기존의 첼로, 태권도, 바이올린, 성경공부, 음악치료 등은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아트 파트를 위한 교사를 모집중에 있습니다. 목요일 오후에 학생들에게 아트를 가르칠 수 있는 분은 연락주세요.

텍사스밀알콰이어 단원 모집
노래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는 장애인, 장애인 가족, 비장애인 모두를 초대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선교단으로 문의하세요. (267-467-5971, txmilal@gmail.com)

기도제목
- 텍사스밀알선교단을 통해서 장애인이 영적으로 회복되며 구원받을 수 있도록.
-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원봉사자들을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함께 한 봉사자들이 밀알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며, 밀알에서 지속적으로 함께하는 동역자로 성장하게 하소서
- 텍사스 내 다른 지역에 사랑의교실 사역을 확대하길 원합니다. 합당한 만남을 주장하소서
- 지금의 봉사자들을 다음 세대의 리더로 세워지게 하소서
-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언어, 미술, 운동, 행동치료 등의 전문가 그룹을 조성하게 하시어 밀알 토브 사역이 진행되게 하소서
- 지역의 여러 교회가 밀알 사역을 선교지로 알게 하시어, 선교에 동역하는 마음을 부어 주소서. 그리하여 더 많은 이들에게 장애인 선교의 창을 보여줄 수 있도록 지도하소서
- 합창단원이 모여져 하나님을 목소리로 찬양하는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며, 새로 구성된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모여 다음 연주회까지 하나님 앞에 더 준비되게 하소서
- 2026 밀알의밤이 잘 준비되게 하시며, 이를 통해 밀알의 사역이 더 많은 이들에게 소개되게 하시고, 필요한 재정이 채워지게 하소서,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며, 성령 안에서 사역이 진행되게 하소서
- 사랑의교실이나 아카데미에 있는 장애인들이 성장하면서 나타나는 여러 다양한 면들을 잘 제어하며,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 2027년에 시작하는 밀알 평생아카데미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준비하게 하시며, 만나야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길을 여시고, 행정적 시스템을 성경적 틀 안에서 갖추게 하시며, 아카데미에 함께 할 장애인들을 보내주소서

재정보고 2026년 8월

| 남가주

■ **INCOME: $23,598.98**

Individuals: $4,910.00 $10 Missionary Deborah / $30 Hyoung Seo, Jin Sook Kim / $100 Anthony D. & Chun C. Gamble, Ho Myoung & Won Sook Lee, Hye Ran Lee, In Soon Chung, Kyong Ok Lim, Young Soon Park / $150 Jack C. Kim / $200 Eunsook Park, Jaemin Youk, Kyung Won & Sangmi Kang, Mi Sup Lee / $300 David Heung & Jeong Mi Kim / $390 Keun Suk Park / $500 Hong Royong Kim, Steven Chul Kim / $600 Hye Jeong Lee / $1,000 Inju Uyehara

Churches & Businesses: $12,100.00 $50 Alabama Full Gospel Church / $100 Han Woo Ri Korean Presbyterian Church, Rohthem Presby. Church / $150 The Lighthouse Mission Church / $200 Bethel Korean Church, Choong Hyun Ch(Good Samaritan Fellowship), LA Mission Church of Hope, Light of Love Mission Church / $250 El Paso Central Baptist Church / $300 Full Gospel L.A Church, H.D. Grace Church, Irury LLC, Sarang Community Church, The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The Lord's Community Church / $500 General Metal Recycling Co. / $750 Good Stewards Church, Irvine New Life Korean Church / $900 Korean Church of Orange County, World Mission Church / $2,300 Shalom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 $2,750 Good Shepherd Presbyterian Church

Specials & Designated Donation: $6,588.98 $50 Donor Advised Fund / $300 Joanne Lee for Class AGAPE OC Lunch / $1,590 Camp AGAPE / $2,723 Camp Fundraising / $300 Sign Language Class / $500 Designated for Rent / $1,125.98 Seattle Camp T-shirts

■ **EXPENSE: $62,041.51**

Class AGAPE: $442.35 $242.35 Events & Meetings / $200 Gifts

Camp AGAPE: $11,850.07 $2,214.87 Camp Essay Award / $9,284.20 Venues / $51 Camp Supplies / $300 Other Camp Expenses

Adventure AGAPE: $17,175.00 $6,000 Meals & Snacks / $11,175 Theme Park Tickets

Media Mission: $2,605.70 $1,650 M&W Publication / $921.62 Shipping & Handling / $34.08 PO Box & Return mail

Sign Language Class: $756.00 Instructors' Compensation

Charitable Supports: $1,400.00 $500 Periodic Supports / $300 Palm Misson Church / $200 Shalom Disability Ministries / $300 Condolence to Lee & Kim Families / $100 Funeral Service for Han Family

Ministry Expense: $1,701.85 $102.49 Lunch with Pastor Shin(Kosovo: / $307.37 Shimbang / $750 Thursday Worship / $500 Tuesday Worship / $41.99 Birthday cake

Fundraising Expense: $2,401.19 Merchandise

Payroll Expense: $9,209.29 $5,803.66 Salaries & Wages / $470.88 Payroll Tax / $840 Employee Benefit / $2,094.75 Housing Support

Admin & Management: $12,772.71 $10,172.79 (for Aug & Sept) Rent / $61.03 Woongjin / $332.25 FBM / $164.26 Telephone & Internet / $543.41 Electricity / $204.03 Office Supplies / $984.24 Alliance Fee for America Milal / $59.80 Office Meals / $25 Bank Charges / $213 SBA EIDL Interest / $12.90 Postage & Shipping

Auto Expense: $1,727.35 $584.49 Gas / $1,142.86 Maintenance

Previous Carry over Balance: $49,959.80 | Next Month Carry over Balance: $11,517.27

■ **Milal Scholarship Finance Report**
INCOME: $9,570.00 <Churches & Businesses $600: $300 Irvine Onnuri Church / $300 Milal Mission in Philadelphia> <Specials & designated $8,970: $1,000 Designated to Lee Family / $6,350 Milal Night Brochure Ads / $1,000 Milal Night Contribution / $620 Milal Night Tickets Sales>
EXPENSE: $21,314.04 <Scholarship $12,166.25: $1,500 Collegians / $1,000 Designated Scholarship / $1,200 Third countries / $7,566.25 Reserved Ministries Support / $900 Volunteers Aids> <Milal Night $9,122.79: $1,876.90 Flyers & Tickets / $1,000 Hot Deal Set-up fee / $32.44 Supplies / $7,213.45 Guests> <Bank Charge $25>
Previous Carry over Balance: $33,748.09 | Next Month Carry over Balance: $22,004.05

| 북가주

■ **INCOME: $6,846.79**

Individuals: $3,300.00 $50 Seongjun Kim, Sinja Kim, Young Kim, Woosung Lee / $100 Klepeis Family, Seokkwon Lee & Chanmi Jung / $200 Jonathan & Joung Ok Han, Wonil Jeon & Yeonsil, Younghoon Choi & Jaehyun / $300 Jungki Kim & Kyungah Nam, Rachel Family, Youngsoo Oh / $400 Hakcheon Lee & Jisun / $500 Sora Jung Family, Hyunsang Cha & Eunmi

Churches & Businesses: $1,716.79 $100 Bruce Lee Hair Salon, San Jose Full Gospel Central Church, Tracy Lord's Grace Church / $116.79 AOGF / $200 Lord's Hand Church / $300 Immanuel Presbyterian Church (Milal Small Group) / $400 New Life Church, Immanuel Presbyterian Church

Designated Donation: $1,830.00 <Class AGAPE $900: $100 Jungki Kim & Kyungah Nam, Sangwoo Park Family / $200 Bethel United Methodist Church, Subin Ahn Family / $300 Emmaus Mission Center> <Tuesday Worship $430: $100 Jungki Kim & Kyungah Nam, Kangjin Lee & Yujin Kwon / $230 Songhwa Jeon> <Mexico Milal $500: Hyosun Kim>

■ **EXPENSE: $16,821.09**

Mission Expenses: $12,542.95 Staff Compensation(5) $7,056.35 / Ministry Activities $301.41 / American Milal Support $551.01 / Retirement Fund $300 / Camp AGAPE $260.22 / Class AGAPE $259.96 / Congratulatory and Condolence Gifts $114 / Mexico Milal Support $3,700

Admin. & Management: $2,484.84 Utilities $291.58 / IRS Tax $492.87 / Office Rent $1,400 / Wire Transfer Fee $30 /

Computer-Related Expenses $270.39

Auto Expense: $348.73 Fuel $197.46 / Car Wash $38.48 / Insurance $112.79

Media Mission: $1,444.57 Milal & World Mailing $487.09 / Milal & World Printing $879.12 / Website $78.36

Previous Month Carryover Balance: $18,998.03 | Next Month Carryover Balance: $9,023.73

| 시애틀

■ **INCOME: $9,900.00**

Individuals: $3,720.00 $30 남숙희, 정은옥 / $50 이영자, 조성배, 박진경 / $100 경자혼, 오수미, 노현숙, 김해정, 류준명, 김경자, 함월선 / $150 김복조 / $200 송인숙, 문창선, John Ki Lee / $460 장영준&장아련 / $600 무명 / $1,000 이명운

Churches: $4,750.00 $100 밴쿠버 사랑장로교회, 벨링햄화평교회, 타코마 삼일교회, 시애틀 물댄동산교회, 목양감리교회, 순복음 큰빛교회 / $150 페더럴웨이 벧엘침례교회 / $200 페더럴웨이 중앙장로교회 / $300 퓨알럽한인장로교회, 낮은울타리교회, 타코마한인장로교회, 등대교회 / $500 하나로장로교회 / $600 훼드럴웨이 선교교회 / $1,500 시애틀연합장로교회 드보라선교회

Businesses: $400.00 $300 Fair Ridge Law Firm / $100 임학수CPA

Designated Donation: $1,030.00 Camp Agape

■ **EXPENSE: $20,045.26**

Mission Expense $3,828.44 / Admin & Management $1,440.23 / Media Mission $1,961.41 / Class AGAPE $2,078.92 / 상회비 $399.60 / SMA&TMA $775.56 / Tax $481.60 / Special event $192.99 / Camp Agape $7,549.46 / Insurances $338.11 / Pastoral Visit $698.94 / Retirement Plan $300

Previous month carry over balance: $84,569.53 | Next month carry over balance: $74,424.27

| 밴쿠버

■ **INCOME $5,015.00**

Individuals: $550.00 $10 김형용, 계영실 / $20 이경순, 한은순 / $30 원소현, 테레사최, 정미영 / $50 이혜영, 이재림 / $100 이상현유혜정 / $200 하준석

Churches & Businesses: $3,500.00 $100 헤브론교회(#7760) / $200 Oronia, WJD Foundation / $3,000 Christine N. Kim Inc.(#7016)

Specials & Designated Donation: $965.00 <사랑의교실 $300: $50 오정석, 강향숙 / $100 곽혜경, 김계은> <아트 페스티벌 데이캠프 $165: 참가비> <designated 500: 코람데오(#5024)>

■ **EXPENSE: $11,688.47**

Payrolls: $3,654.79 사례비(2인)

Mission Expense: $78.13 활동비

Events: $825.04 <아트 페스티벌 데이캠프 리턴 $80> <함께걸음 $745.04: 투게더 우산구입 $722.95 / $22.09 행정비>

Class AGAPE: $3,168.87 <Happy Together Class $168.87: 통신비 $61.60 / 줌사용료(8월) $83.42 / 교실 및 오티준비 $23.85> <사랑의교실 렌트 $3,000>

Admin & Management: $311.20 통신비 $67.20 / 바운스리턴 $200 / 은행피 $16(바운스피 포함) / 챗지피티 구독료 $28

Taxes: $527.51 payroll(8월)

Auto Expense: $934.13 운행비 $300.88 / 밴보험(9회차) $203.71 / 밴패이먼트 $429.54

Designated Expense: $500.00 코람데오

차용리턴: $2,000.00

Previous month Carry over Balance: $16,824.90 | Next month Carry over Balance: $10,151.43

| 텍사스

■ **INCOME: $7,491.28**

INDIVIDUALS: $865.00 $20 진현주 / $25 방진원 / $50 김태남&이선화, 김희경 / $80 정호영 / $180 채경수&임현정 / $460 박진영

CHURCHES & BUSINESSES: $1,556.28 $6.28 interest / $50 프렌즈교회, 포트워스제일장로교회 / $100 나눔교회, 빛과소금의교회, / $150 영락장로교회 / $200 라이프교회 / $300 주님의교회 / $600 제자침례교회

DESIGNATED DONATION: $5,070.00 <사랑의교실: $200 김병윤, 무명 / $203 FENY / $405 Photo Signature / $2,322 The One Hero Project> <아카데미&오케스트라: $100 송미령, 구본진 / $540 오케스트라단원회비> <장소후원: $600 한우리교회> <밀알의밤: $200 한인상공회의소> <직업재활: $200 세미한 Beanyard coffee>

■ **EXPENSE: $7,125.27**

MISSION EXPENSE: $4,545.80 Payroll $1,385.25 / housing support $1,700 / 밀알&세계 인쇄비 $405 / 지단상회비 $150.06 / 은급비 $288.02 / 간사사례 $300 / 단장활동비 $55.09 / 노회비행기표 $262.38

CLASS AGAPE & 밀알아카데미 & 오케스트라: $410.99 오케스트라교사모임 $110.99 / 강사료 (3인) $240 / 악보구입 $60

ADMIN & MANEGEMENT: $2,168.48 장소사용료 $200 / 카드 등 재정관련수수료 $189.78 / 통신비 $100 / IRS tax $229.50 / NTTA toll $240 / Gas $381.20 / Insurance $100 / Utility $379.53 / 사무용품 $54.47 / 우표구입 $164 / Costco renewal $130

PREVIOUS MONTH CARRY OVER BALANCE: $10,159.27 | NEXT MONTH CARRY OVER BALANCE: $10,525.28

The World Milal Association 세계밀알연합 | worldmilal.org

서울 동작구 솔밭로 97-6, 3층 / Tel: 02-533-9251 / Fax: 02-533-9258 / wmilal@worldmilal.org

American Milal Mission Inc. 미주밀알선교단

14545 Valley View Ave, Suite S, Santa Fe Springs, CA 90670 / Tel: 562-229-0001 / wheatmissioninus@gmail.com

Milal Mission in Southern California 남가주밀알선교단 (이종희 단장) | milalsca.org

14545 Valley View Ave, Suite S, Santa Fe Springs, CA 90670 / Tel: 562-229-0001 / admin@milalsca.org

정기모임	OC	매주 목 오후 7:00	주님의빛교회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LA	매주 화 오후 7:00	남가주새누리교회	975 S. Berendo St, Los Angeles, CA 90006
	월례기도모임	매월 마지막 화 오후 7 :30	Zoom	
사랑의교실	OC	매주 토 오전 10:00 ~ 오후 2:00	남가주연합장로교회	1565 W. Katella Ave., Anaheim, CA, 92802
	LA	매주 토 오전 10:00 ~ 오후 2:00	주님의영광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동부	매주 토 오전 10:00 ~ 오후 2:00	선한청지기교회	2701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얼바인	매주 토 오전 9:30 ~ 오후 1:30	얼바인온누리교회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토랜스	매주 토 오전 9:30 ~ 오후 1:30	토랜스제일장로교회	1880 Crenshaw Bl., Torrance, CA 90501
	성인	매주 토 오전 10:00 ~ 오후 2:00	남가주밀알 사무실	14545 Valley View Ave. Suite S, Santa Fe Springs, CA 90670
	통합반	매주 토 오후 2:30 ~ 오후 6:30	남가주밀알사무실	14545 Valley View Ave. Suite S, Santa Fe Springs, CA 90670

Milal Mission in Northern California 북가주밀알선교단 (김정기 단장) | milalnca.org

871 Coleman Ave. Suite 205, San Jose, CA 95110 / Tel: 408-605-2134 / norcalmilal@gmail.com

장애인과 함께 나누는 예배와 찬양모임

정기화요모임	산호세	매주 화요일 저녁 6:30 ~ 9:00	세계선교침례교회(1,2,4,5주)	62 S.San Tomas Aquino Rd, Campbell, CA 95008
			산호세한인장로교회(3주)	770 Lucerne Dr. Sunnyvale, CA 94085
사랑의교실	산호세	매주 토 오전 10:00 ~ 오후 3:00	산호세새소망교회	2900 Patrick Henry Dr. Santa Clara, CA 95054
	산타클라라	매주 토 오전 10:30 ~ 오후 3:30	산타클라라연합감리교회	1001 Ginger Lane, San Jose, CA 95128

Milal Mission in Seattle 시애틀밀알선교단 (장영준 단장) | seattlemilal.com

8506 238th St. SW, Edmonds, WA 98026 / Tel: 425-444-1669 / Fax: 425-774-2499 / seattlemilal@gmail.com

사랑의교실 시애틀	매주 토요일 오전 10:30 ~ 오후 2:30	시애틀연합장로교회	8506 238th. SW, Edmonds, WA 98026
Seattle Milal Academy (성인 장애인)	매주 화요일 오전 10:30 ~ 오후 3:00	시애틀형제교회	3700 Monte Villa Pkwy. Bothell, WA 98021
Tacoma Milal Academy (성인 장애인)	매주 목요일 오전 11:00 ~ 오후 3:00	타코마중앙장로교회	8001 Pine St. S. Lakewood, WA 98499

Milal Mission in Vancouver 밴쿠버밀알선교단 (이상현 단장) | vancouvermilal.com

Instagram: @Vancouver_milal | Youtube: @Woorilog 우리로그, @Vancouvermilal 벤쿠버밀알

14625 108 Ave, Surrey, Upper Room, BC, V3R 1V9 CANADA / Tel: 604-339-4417 / vanmilal01@gmail.com

사랑의교실 토요모임 Happy Together	매주 토요일 오전 10:00 ~ 오후 12:00	써리장로교회	15964 88th Ave., Surrey, BC, V4N 1H5

예배, 작업치료, 음악, 댄스, 사진, 크래프트, 운동, 레크레이션, 베이킹, 공동식사, 아웃팅, 난타교실

Texas Milal Mission 텍사스밀알선교단 (채경수 단장) | txmilal.org | facebook.com/texasmilal

2828 E. Trinity Mills Rd, #360, Carrollton, TX 75006 / Tel : 267-467-5971 / Fax: 682-292-1365 / txmilal@gmail.com

사랑의교실	매주 토요일 오전 9:30 ~ 오후 1:30	한우리미션센터	1835 Pearl St. Carrollton, TX 75006
밀알성경적상담	매주 월~금 오전 10:00 ~ 오후 3:00	밀알선교센터	2828 E. Trinity Mills Rd, #300, Carrollton, TX 75006
목요 밀알아카데미	매주 목요일 오후 1:00 ~ 오후 4:00	달라스우리교회	2633 Royal Ln, Dallas, TX 75229
밀알청년모임	매주 목요일 오후 5:00 ~ 오후 6:00	한우리미션센터	1835 Pearl St. Carrollton, TX 75006
밀알 청년오케스트라	매주 토요일 오후 2:00 ~ 오후 4:00	한우리미션센터	1835 Pearl St. Carrollton, TX 75006
화요 온라인 기도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7:00	Zoom ID: 895 0864 4965 / Passcode : 152562	

전세계에 퍼져있는 밀알들

세밀연 미주총단	워싱톤 / 리치몬드 / 캐롤라이나 / 필라델피아 / 시카고 / 뉴욕 / 뉴저지 / 애틀랜타 / 시애틀 / 북가주 / 남가주 / 텍사스 마이애미 / 캐나다(토론토) / 밴쿠버 / 브라질 / 파라과이 / 아르헨티나 / 과테말라 / 멕시코
세밀연 유럽총단	북부독일 / 중부독일 / 남부독일 / 베를린 / 오스트리아 / 프랑스 / 스페인 / 포르투갈 / 헝가리 / 벨기에 / 우크라이나 바르셀로나 / 베오그라드 / 코소보
세밀연 한국총단	경기 / 전남동부 / 김포강화 / 거제통영 / 목포 / 부산 / 수원 / 용인 / 고양 / 구미김천 / 양산 / 경기광주 / 고흥보성
기타지역	뉴질랜드 / 호주 / C국(A,B) / 방글라데시



남가주

일시 & 장소: 10월 9일(금) 오후 7:30 | 토랜스조은교회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일시 & 장소: 10월 11일(주일) 오후 6:00 | 남가주동신교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문의: 남가주밀알선교단 Tel: 562-229-0001 | Email: admin@milalsca.org

워싱턴 D.C.

일시 & 장소: 10월 17일(토요일) 오후 6:00 | 워싱톤지구촌교회 (13421 Georgia Av, Silver Spring, MD 20906)
문의: 워싱턴밀알선교단 Tel: 240-550-0771 | Email: milalusa@gmail.com

필라델피아

일시 & 장소: 10월 18일(주일) 오후 5:00 | 영생장로교회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
문의: 필라델피아밀알선교단 Tel: 215-833-8070 | Email: philamilal@hotmail.com

텍사스

일시 & 장소: 10월 23일(금) 오후 7:30 | 뉴송교회 (4220 Fairway Dr, Carrollton, TX 75010)
문의: 텍사스밀알선교단 Tel: 267-467-5971 | Email: txmilal@gmail.com

시카고

일시 & 장소: 10월 24일(토) 오후 6:00 | 레익뷰언약교회 (950 Northbrook Av, Northbrook, IL 60062)
문의: 시카고밀알선교단 Tel: 847-877-4202 | Email: chimil94@gmail.com

북가주

일시 & 장소: 10월 25일(주일) 오후 5:00 | 마운틴뷰 새누리교회 (1250 W Middlefield Rd, Mountain View, CA 94043)
문의: 북가주밀알선교단 Tel: 408-605-2134 | Email: ncmilal@gmail.com